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	
		배포일자	2022년 7월 26일(화) 총 3매		
담당 부서	환경기후 정 책 과	담 당 자	• 환경정책팀장 한종원 ☎440-3511 • 담당자 임철순 ☎440-3513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인천시, “지속가능한 발전” 위해 시민단체 · 학계 · 전문가와
머리 맞대고 중장기 환경계획 수립 위한 논의**

- 26일, 제6차 환경계획수립 용역 위한 환경계획수립협의회 개최 -
- 공간환경구조 구상 및 부문별 전략에 구축된 공간환경정보 적극반영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6(화)일 공감회의실에서 『인천광역시 제 6차 환경계획 수립 용역』을 위한 환경계획수립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인천시 환경계획수립협의회(착수보고회)에는 안영규 부시장을 비롯해 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을 대표하는 시민단체, 대학교 교수, 전문가, 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했다.

환경계획수립협의회는 지자체에서 환경계획 수립 시 “지속가능한 발전”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의 수립절차와 내용 등을 상호 연계 · 보완 · 협력하는 정책과정으로, 계획 수립 추진 단계부터 확정까지 환경 및 도시 분야 공무원, 시민단체, 학계,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운영 된다.

시는 제5차 환경보전계획의 계획기간이 2023년 완료 예정됨에 따라,

사회, 경제적 여건변화와 환경영향을 예측하고, 환경계획에 공간정보를 도입해 환경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2040년을 목표로 제 6차 환경계획수립 용역 환경계획수립협의회(착수보고회)를 개최했다.

이번 용역은 2040년을 목표연도로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립·시행하는 인천광역시 환경계획(2024 ~ 2028) 수립을 위한 것으로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내년 7월 까지 총 12개월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.

특히 이번 6차 환경계획 수립 용역의 가장 큰 특징은 물, 대기, 자연환경, 토양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해 공간환경구조 구상 및 부문별 전략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며 향후 환경계획수립협의회, 부문별 전략포럼 세미나, 공청회를 통해 계획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.

한편 오늘 협의회에서는 자연생태·자연보전가치, 생물다양성 증진, 지역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전지역 및 생태축의 공간환경구조를 현실에 맞게 구상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, 오염원(대기, 수질, 토양 등)과 자원(폐기물, 물순환, 상하수도, 지하수, 에너지 등)에 대한 체계적·순환적 관리전략을 위해 GIS를 통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.

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환경계획수립협의회에서 “『인천광역시 제6차 환경계획』 수립을 위해 환경 및 도시분야별 시민단체, 학계, 전문가를 모시고 광역생태축 설정과 생태 및 생활환경 공간환경구조 구상에 대한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.”며 “향후 계획과 관련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

관계기관과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협업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6시 30분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